

보도시점: 2026. 9. 21.(월) 배포 즉시

배포: 2026. 9. 21.(월)

새만금청-새만금공사, '새만금 제2산단' 조성 위한 총괄자문회의 개최

- 현대차 등 대규모 투자와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한 산업단지 개발 방향 구체화 -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와 함께 9월 21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 총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 선기운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이사를 비롯해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 등 도시계획·교통·경관·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2산단의 미래 발전 방향과 공간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 주요 안건으로는 새만금의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제2산단의 공간 구조와 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첨단산업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산업기능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산업·교통·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조성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 또한, 만경강과 서해 등 새만금의 자연경관과 지역적 특성을 산업단지 계획에 반영하고, 스카이라인과 용지별 건축계획, 도시경관 형성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 양 기관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개발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양 기관은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 산업·경제, 교통, 조경·경관, 건축 등 5개 분야 12명의 전문가로 총괄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양 기관은 그간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와 첨단산업 기업 유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7년 말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제2산단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새만금개발공사 선기운 개발이사는 “공사는 대규모 투자와 첨단산업 기업의 지속적인 유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기업의 투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과 정주환경을 갖춘 제2산단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남영우 차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은 현대차 등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투자와 첨단산업 수요를 제2산단의 개발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기에 마련하고 신속한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전북 지역의 3대 성장 엔진 추진에 기여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홍지광	(063-733-1250)
		담당자	서기관	박승석	(063-733-1266)
	새만금개발공사 관광산단처	책임자	주무관	손용석	(063-733-1263)
			처장	김영일	(063-440-6790)
		담당자	팀장	서준석	(063-440-6791)